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시리즈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2021. 9. 14.(화). ~ 9.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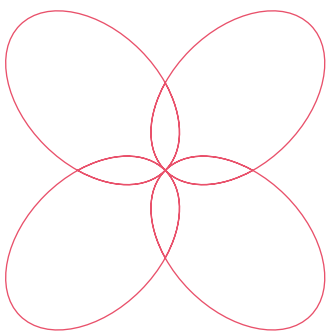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일원 / 극장 용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이 만나다.

많은 것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지금,
지친 일상에 생기를 불어 넣다.

시대와 같이 변화되어 온 우리음악,
낯설지만 친근하게 다가올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주간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고, 듣고, 즐기세요!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는 전 세계에 전해 내려오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소멸의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긴급보호목록,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모범사례목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2건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 판소리(2003)
- 강릉단오제(2005)
- 강강술래(2009)
- 남사당놀이(2009)
- 영산재(2009)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 처용무(2009)
- 가곡(2010)
- 대목장(2010)
- 매사냥(2010)
- 줄타기(2011)
- 택견(2011)
- 한산모시짜기(2011)
- 아리랑(2012)
- 김장문화(2013)
- 농악(2014)
- 줄다리기(2015)
- 제주해녀문화(2016)
- 씨름(2018)
- 연등회(2020)

*2021년 기준

2021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13	14	15	16	17	18
					종묘제례악 '반가운 만남 있어 노래하고 춤추다' 20:00	종묘제례악 '반가운 만남 있어 노래하고 춤추다' 17:00
19	20	21 추석	22	23	24	25
전통연희극 '오라차차 아리랑' 17:00			처용- 心 15:00	완창판소리 프로젝트2 '강산제 수궁가' 20:00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20:00	아리랑 Factory, 기쁨도 슬픔도 넘치지 않고 17:00
26	27	28	29	30		
춤추는 관현악 17:00						

관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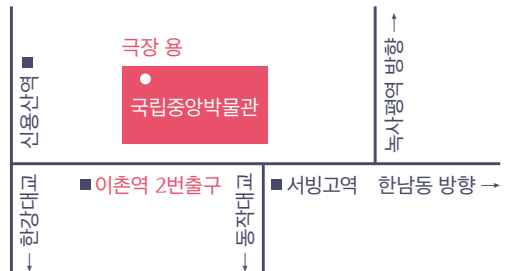
- 무료관람(36개월 이상)
- 티켓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배부합니다.
- 객석 입장은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 본 공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연 전/후 소독이
진행됩니다.
- 극장 '웅' 공연을 제외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준하여 비대면 영상촬영으로 진행되고 관객통제가
있을 예정이오니 관객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매처

- www. kotpa.org
- 극장 '웅' 공연은 온라인 선착순 사전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2매)

공연문의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02-580-3266
- 국립중앙박물관
02-2077-9000



(기획공연) **종묘제례악** **‘반가운 만남 있어 노래하고 춤추다.’**

2021. 9. 17.(금). 20:00 | 극장 ‘웅’
 2021. 9. 18.(토). 17:00 | 극장 ‘웅’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처음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
 어렵게 느껴지는 종묘제례악을 음악과 춤,
 그리고 극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

하늘과 땅과 인간을 잇는 이야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

줄거리

어느 날 아침, 종묘 개관을 준비하며 청소를 하던 종윤은 갑자기 울음이 터진다. 지난밤 꿈에 나온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쓸쓸했던 것이다. 이때 다람쥐와 까치, 향나무가 울음소리를 듣고 나타난다. 종윤은 눈물을 감추며 자신은 울지 않았다고 시치미 떼는데, 그러자 향나무는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종묘에서 얼마든지 울어도 좋다고 종윤을 위로한다.

종묘에서 나라의 큰제사가 벌어지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향나무. 자기 몸을 사른 향기로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향나무의 말에 종윤은 그런 만남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종묘 숲에 깃들어 살면서 오랜 기억 속 존재들을 마주친다는 다람쥐와 까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종묘 숲의 나무와 바람 한 줄기에도 감격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윤은 점점 믿게된다.

종묘가 불러일으키는 그리움 속에서라면 ‘만남’은 계속될 수 있다고. 돌이킬 수 없는 만남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종묘에서는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프로그램

#1. 아침 곡소리
 - 전폐희문 일무

#2. 오래된 만남
 - 보태평과 문무
 - 정대업과 무무

#3. 종묘를 가져라

등장인물

관리인 종묘 관리소 직원
까치 종묘에 대대로 살아온 종묘 숲의 동물
다람쥐 종묘에 대대로 살아온 종묘 숲의 동물
향나무 종묘 연못의 오래된 향나무
큰 바람, 작은 바람 종묘의 안팎에 머물며, 여러 존재들의 마음을 이어준다.

종묘제례악

종묘는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를 모시는 숭고한 공간이다. 종묘제례는 일 년에 한 번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종묘제례악은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음악으로 나뉘는데 전통예술 공연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악기를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일무’라는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춤을 함께 춘다. 이처럼 종묘제례악은 눈으로 보는 음악이라고도 하는데 극과 함께 풀어갈 종묘제례악 공연을 함께 감상해보자.

출연진

종묘제례악 보존회
 감독 황인완
 집사 조운조
 집박 양명석
 악장 김병오
 편종 홍선숙
 편경 김미숙
 방향 모정미
 절고 조희춘
 축 안지영
 어 홍지연
 아쟁 이혜리
 징 황준하
 태평소 김정집
 피리 이에리사, 김해진, 이한석
 대금 노봉래, 전명진, 유수환, 정하선, 임혜정
 해금 허윤재, 민서호
 휘 김슬미

(사)아악일무보존회
 구성 김영숙
 지도 이미주
 일무 김경진, 김경숙, 안시향, 이승주, 윤상미, 김희원, 송영인, 이나윤, 하수연, 박수정, 강윤주, 김윤희, 백수연, 이채영, 장성희, 민혜원, 박수련, 우소연, 이현숙, 김보경, 남궁선, 이은경, 김하나, 허소연

배우
 관리인 이종윤
 까치 김태훈
 향나무 한규남
 다람쥐 조혜안
 큰 바람 선은지
 작은 바람 황서영

제작진

연출/구성 남동훈
대본/가사 조정일
작곡/음악감독 유민희
안무/움직임 선은지

의상디자인 송은주
음향디자인 엄태훈
소품디자인 정윤정
무대디자인 오태훈
조명디자인 노명준
영상디자인 김장연
분장디자인 이승환
조명프로그램머 서승희
조명 크루 김송이, 이혜지
무대감독 임석현
조연출 신민경
노래지도 구민지

기획/제작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연주(MR)
 대금 김성현
 생황/피리 김소엽
 해금 노다은
 25현 가야금 이수진
 거문고 박수지
 대아쟁 양효정
 타악 정하나
 첼로 강원기
 건반 이혜미

*본 공연의 음향 중 악기 소리들은 (국립국악원 국악 디지털 음원)을 활용해서 제작한 것임.



오프라인 공연

전통연희극 '으라차차 아리랑'

2021. 09. 19.(일). 17:00 | 극장 '웅'

극의 주요 인물인 '다섯 아리랑 장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

각 지방의 아리랑인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어랑타령의 노래가 가진 특징과 역사성을 '다섯 아리랑 장수'에게 녹여내어 위기 속에서 화합과 희망으로 극복하고 아리랑의 생명력을 담은 삶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리랑 노래와 전통연희를 극과 결합한 전통연희극! 함께 즐겨보자.

단체소개

전통연희단 꼭두쇠

전통과 현대의 중심에서 한국의 전통연희를 중심으로 새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연희단체로 남사당놀이에 뿌리를 두고, 전통의 원형 보존과 창작, 그리고 교육까지 다방면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출연진

꼭두쇠 성주호
도리돌쇠 현정석
찌렁쇠 최은영
바우 신주명
팔뚝이 김현희
꺅단이 김시은
시시딱딱 김남희
광대 김혜진, 우성희, 박은경
산발이 김소민, 남지윤
건반 전지인
해금 김리현
피리 이동현
대금 김기욱

제작진

연출 김원민
기획 양인경
조연출 성주호
극본 고순덕
작곡 노선락
캐릭터디자인 김미정
영상감독 정혜지
분장 디자이너 이지연
분장 어시스턴트 장지연
소품 감독 박은화



오프라인 공연

처용-心

2021. 9. 22.(수). 17:00 | 극장 '웅'

서라벌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닐다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인데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현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나라와 그 안에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무용, 타악기, 플로팅 테크놀로지 기술 등을 접목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협업을 통한 융 복합 퍼포먼스로 처용의 복잡하고 미묘했을 내면을 그려낸다.

단체소개

ART STAGE 다울-청평문화예술학교

우리 춤의 올곧은 보존과 계승발전을 통하여 새로움을 창조하고, 나아가 우리 춤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우리 춤이 지닌 멋과 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이다.

출연진

무용 정혜준, 김민지, 윤보람, 기획 진수영
신유진, 임효정, 신행운,
신소연, 백지수, 이승우,
심재훈
타악 전통예술단 아울

제작진



오프라인 공연

완창판소리프로젝트2

'강산제 수궁가'

2021. 9. 23.(목). 20:00 | 극장 '용'

이 시대를 사는 소리꾼과 고수의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되는
완창 판소리!

잘 보존된 강산제 수궁가를 현대의 판으로 재구성되어
펼쳐지는 이야기로 수궁과 지상을 오가며 펼쳐지는 토끼와
별주부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로 비유된 수궁가 속 다양한
인간군상을 들여다본다. 동시에 사회 전반에 흩뿌려진
부조리함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살펴보자.

연희, 민요가 더해져 기존의 전통판소리 완창보다 음악적,
시각적인 면에서 확장된 형태로 선보인다.

단체소개

입과손스튜디오

오랜 기간 판소리 창작 작업을 함께해 온 소리꾼과 고수가
모인 작업공동체이다. 판소리라는 연희양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하며 예술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확장 또는 변형 하는 작업과 연구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판소리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보다 깊고 폭넓게
고민해보고자 한다.

출연진

소리꾼 김소진
바깥소리꾼 이승희
고수 이항하, 김홍식, 정준규
연희단(연희컴퍼니 유희)
임영호, 오승원, 이동근,
성유경, 지경태, 안태원
민요단(경기민요)
성슬기, 조원석

제작진

공동연출/음악
입과손스튜디오
무대감독 김지명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디자인 신동선
음향디자인 장태순
의상디자인 Le Vermillon
프로듀서 유현진



오프라인 공연

꼭두, 80일간의 세계 일주

2021. 9. 24.(금). 20:00 | 극장 '용'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무사히 마치면, 기다리던 저승문이
열린다!

전염병, 따돌림, 끝없는 욕심과 질투, 싸움들... 척박한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삶의 희망을 잃은 박첨지는 결국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 결심한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조차
쉽지 않고, 명줄이 길고 긴 박첨지는 마음대로 죽는 것조차
거부당한다.

“단,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무사히 끝나치고 돌아오면
저승문을 열어주겠다.”

저승사자의 약속을 받은 박첨지는 세계 일주에 나선다.
80일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며 세상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 박첨지, 그는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저승문을 열
수 있을까?



오프라인 공연

단체소개

연희공방 음마깡깡

연희공방 음마깡깡은 '음마'는 소리를 어루만져 음악을
만들고, '깡깡'은 대장간에서 나오는 소리의 의성어를
합친 이름이다. 인형, 인형막, 악기, 음악 등 공연에 필요한
오브제 및 창작물을 만드는 단체로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중 덜미를 중심으로 온고지신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현대에 맞는 풍자와 해학을 인형극을 통해
보여주며, 국악과 인형극을 접목한 우리만의 유일한 오브제
극을 창작하고 알리고자 한다.

출연진

배우 방성혁, 음대진, 김성대,
김지훈, 윤현진, 서장호,
장우찬, 김용훈, 배정찬

제작진

연출/인형제작/디자인
음대진
진행 이미림
음향감독 김재희
감독 이경천
작곡/음향감독 박미향
무대감독 원영식



아리랑 Factory, 기쁨도 슬픔도 넘치지 않고

2021. 9. 25.(토). 17:00 | 극장 '웅'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동시에 민족 공동체 정서를 표현하는 아리랑.

아리랑은 한민족의 공동체적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이 나타나 있는 우리 문화의 정신이다. 아리랑은 흥겨움 속에 한숨 같은 한이 있고 고난을 이겨내는 곳곳한 기개가 있으며 희로애락 속에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어 가져 연연히 이어오는 끈질김이 있다. 이번 한국 창작 춤 공연에서는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의 아리랑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했다.



오프라인 공연

단체소개

윤덕경무용단

한국전통춤을 근간으로 한국적 창작무용을 표방하는 무용단체로 1989년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근간에는 사랑과 나눔으로 다양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무용단 대표인 윤덕경은 서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이사장,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전북무형문화재 '수건춤'의 이수자로 춤꾼이자 안무가이다.

출연진

무용 홍미영, 김현아, 박주영,
이영훈, 안정연, 신선미,
반호정, 최유란, 김다현,
박원정, 김다인, 원정민
노래 이철용
피아노 심훈
해금 배우리
대금 김기욱
사회 박은선

제작진

총연출/안무 윤덕경
작곡 김철호, 양용준,
Michael Reola
작가 이철용
조명디자인 김철희
무대감독 양동주
의상디자인 김찬희, 강민주
분장 최유정
영상 최진규
진행 정재은



춤추는 관현악

2021. 9. 26.(일). 17:00 | 극장 '웅'

보면대를 보지 않는 연주자
관객과 소통하며 연주하는 열정
연주자의 자유로운 움직임

연주자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퍼포먼스까지 보는 즐거움! 우리 전통 판소리 및 민요를 관현악, 성악, 춤으로 표현한 역동적인 작품으로, 기존 국악관현악의 악기 편성과 디지털 악기와의 앙상블로 쉽고 흥겨운 춤곡 위주로 새로운 국악관현악 사운드까지 선보인다.

단체소개

(사)중앙국악관현악단

1987년 국내 최초로 창단된 민간 국악관현악단이다. 국악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표로 새로운 국악의 창작과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하여 한국음악의 발전과 대중의 문화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는 단체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출연진

지휘 이춘승
안무 류장현
노래 윤은서
피리 백경희, 신상준, 정다운
해금 이태은, 김혜민, 배지윤, 김예준,
김현재, 이채민, 호선인
아쟁 문아람, 백선주, 오하라, 이주희
거문고 박천경, 배상중
소금 최우창
대금 하동민, 이한샘, 윤지희, 박두리
가야금 김길은, 한수진, 박예림, 김대곤
드럼 한송이
타악 윤희상, 김홍섭, 조예진, 호선인
신디 이예솔

제작진

예술감독 김성국
연출 이춘승
음향 박재범
기획 박도현,
김진슬



오프라인 공연



영산재

‘정淨·안安·락樂·희喜’

프로그램

정淨 : 영산재의 시작과 재가 베풀어지는 도량 즉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 이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발원하는 정화의 마당

- 1. 거령산 擧靈山(깃소리)
- 2. 명발 鳴鉢(4인무)

안安 : 정화의식으로 청정해진 이 자리에 평안과 안락이
더해지길 발원하는 마당

- 1. 타주춤 打柱舞(2인무)
- 2. 향화계 香花偈(착복무-2인무)

락樂 : 정화의식을 통해 깨끗해지고, 평안을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비로소 즐거움을 맞이하는 의식

- 1. 법고춤(1인무)
- 2. 복청개(1인-훑소리)
- 3. 천수바라춤

희喜 :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찬 상태가 되어 이상과 현실의
조화 속에 환희의 꽃을 피우는 의식

- 1. 화청(回心曲)

영산재

영산재는 산자의 행복과 망자의 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고유의 의식으로 범패(노래), 작법(춤), 장엄(미술)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영산재는 하루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3일 동안 진행되는 장대한
의식이었다고 한다. 이번에 선보일 작법은 영산재에서
추어지는 모든 춤을 일컫는 말이다. 불·보살님께 몸으로
공양을 드리는 신업(身業)공양의 형태이며, 찬탄과 발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식무이다. 기능에 따라 7가지의
바라춤과 18가지의 나비춤, 그리고 각 1종의 접고춤과
타주춤이 있다.

온라인 상영

영산재의 공연물로서 가치와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정·중·동(靜中動)의 구조를 갖춘 작법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된 전 인류의
공통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산재의 대표적인
작법무(作法舞)를 선정하여 〈정淨·안安·락樂·희喜〉의
주제를 가지고 행복·안락·평안을 발원하고자 한다.

출연진 소개

범무악(梵舞樂) 프로젝트

한국불교의 고유한 의식인 영산재를 전승하고, 해외와
국내에서 불교의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이수자, 전수생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 영산재의 대표적인
작법무(作法舞)를 선정하여 불교 의식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을 선보이고 영산재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자 본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었다.

출연진

수범스님, 청산스님, 해사스님, 도륜스님, 도봉스님,
수현스님, 성주스님

사회자 박기량



중추(仲秋), 완월(玩月)하니

프로그램

- 1.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 2. 쌍춘앵전
- 3.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 4. 가사 〈어부사〉
- 5. 처용무
- 6. 우조시조 〈월청명〉
- 7. 기악풍류
- 8.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란은〉
- 9. 향발무
- 10. 가사 〈매화가〉

가곡

가곡은 시조 시에 곡을 붙여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로 편성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의
형태이다. 아주 짧은 시를 노래하지만 노랫말을 길게
늘어뜨려 부르기 때문에 느리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시를
노래하는 사람을 가객이라 하는데 남자가 부르는 가곡은
남창가곡, 여자가 부르는 가곡은 여창가곡이라 한다.

온라인 상영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 민족은 둥근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달구경을 즐겼다. 가을밤 선명하게 차오른 달 아래에서
바른 음악과 춤으로 우리의 마음도 보름달처럼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정악과 정재무를 선보이고자 한다.

출연진 소개

박진희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면서 정가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온 가객이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성음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로,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으로 재직 중이며 국립국악중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며 후학들을 만나고 있다.

출연진

거문고 이방실
가야금 정지영
해금 공경진
대금 김성현

피리 이민하
장구 안성일
무용 최나리, 김서량



판소리, 오늘과 상봉하다

지금의 판소리는 전통과 창작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감정과 공감 영역에서는 경계가 불투명해진다. 창작 없는 전통 없고 전통 없는 창작은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살아있는 진술한 판소리,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한다.

프로그램

- 1. 단가 사철가
- 2. 흥보가 中 박타는 대목
- 3. 심청가 中 눈 뜨는 대목
- 4. 눈먼사람 : 심학규 이야기

출연진 소개

이상화
이상화는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이 시대의 광대란 무엇인지 고민하며 활동하는 예인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애환을 달래주고 소통하는데 중점을 두어 다양한 전통공연과 뮤지컬, 창극, 소리극 등의 창작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현재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바투의 상사디아〉 MC로도 활동 중이다.

김봉영
김봉영은 사람의 정서를 담고, 감정의 근원을 찾는 작품활동을 하는 판소리꾼이다. 판소리의 전통적 기술에 마음과 생각, 느낌을 담아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다. 또한, 판소리 보편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해 왔으며, 국악방송 라디오 진행, 연출자, 공연 사회자 등 전통 예술 및 창작 활동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출연진

고수 김홍식	아쟁 한림
피아노 김승진	타악 심운정



판소리

한 명의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가 들려주는 노래로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로 판소리 다섯 마당이 있다. 판소리는 창(노래), 아니리(대사), 너름새(몸짓)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길게는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온라인 상영

한국의 탈춤

우리나라의 탈춤은 종합예술의 형태로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으며, 관객과 함께 판을 만드는 열린 구조의 예술로, 공동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소통의 문화 장치이다. 이러한 탈춤의 예술성을 알리고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 1. 고성오광대 中 문동복춤
- 2. 하회별신굿탈놀이 中 이매마당
- 3. 양주별산대놀이 中 연잎춤
- 4. 북청사자놀이 中 북청사자춤
- 5. 강령탈춤 中 미알할미
- 6. 송파산대놀이 中 옴중춤
- 7. 은율탈춤 中 목중춤

단체소개

천하제일탈공작소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만들고 있는 젊은 탈춤꾼들의 예술단체이다. 전통탈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지역의 탈 움직임 음악 언어를 확장시키고 현 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연진	제작진
문동복춤 허창열	제작 천하제일탈공작소
이매마당 이주원	연출 허창열, 이주원
연잎춤 김지훈	음악감독 김용하
북청사자춤 민현기, 김재민	음악감독 박재식
미알할미 박인선	기획 박용휘, 김은정
옴중춤 이효녕	
목중춤 최민우	
타악 조봉국, 이민형	
가야금 이준	
해금 김승태	
피리 성시영	
대금 박종현	
통소 최민	

탈춤

2020년 3월 한국의 탈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목록에 등재를 신청하였고, 전국 13개 국가지형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상영

‘놀다’ 이곳에서

기존 전통 계승의 연주자 중심의 음악에서 “전통 - 호기심 - 즐거움 - 희노애락” 네 가지 테마 구성으로 좀 더 쉽고 편안한 공연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1. 삼도농악가락
2. 버나놀이
3. 사자놀이
4. 명인전

단체소개

진쇠예술단

국내 손꼽히는 무대공연 전문 단체로서 이미 국내외 다양한 공연 무대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은 예술단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 전수자들을 주축으로 교육, 연구, 공연 등 다방면의 시스템을 갖추며 종합예술의 요람으로 거듭났다.

출연진

뽕과리 김복만	북 고복기
소고/북 길기옥	장구 배민호
북 이윤구	버나놀이 이준호, 백승희
장구 진동규	사자춤 황진삼, 윤현준
뽕과리 김영진	태평소 김동윤



남사당놀이

남사당은 마을을 떠돌며 노래를 부르고 묘기를 부리던 유랑예인집단이다. 우두머리인 ‘꼭두쇠’를 중심으로 4~5명의 남자들이 모여 만든 먼 옛날 아이들이었던 셈이다. 남사당놀이는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로 총 여섯 가지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상영

‘헤이라 헤이라 각기사방 헤이라’

‘헤이라 헤이라 각기사방 헤이라’는 진주 삼천포 농악에서 나오는 고유 사설로 ‘모두 함께 어울려 놀아보자’라는 의미이다. 지구촌 모든 사람이 함께 대한민국의 흥을 즐겨보자는 의미로 선보인다.

프로그램

1. 영남성주풀이(길놀이+지신밟기)
2. 여는 판굿
3. 쇠 개인놀이
4. 소고 개인놀이(I)
5. 북 개인놀이
6. 중간 판굿
7. 장구 개인놀이
8. 소고 개인놀이(II)
9. 허튼굿

출연진 소개

진주삼천포농악 Young 人

진주삼천포농악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 놀이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의 특징적인 장단과 역동적이면서 아름다운 몸짓을 선보이고, 밝은 에너지를 담아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진주삼천포농악의 젊은 이수자와 전수자들의 모임으로 결성되었다.

출연진

뽕과리 조예영
징 배아람
북 문학중
장구정은진
소고 유진, 김태일, 김태현
지신밟기소리/태평소 김동현

농악

농악은 농사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흥을 돋우기 위해 했던 연희이다. 뽕과리, 북, 장구, 징을 치는 농악수를 중심으로 농악대와 구경꾼이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도형이나 선을 만들어 화려함을 더하기도 한다. 농악은 음악이면서 춤이고 동시에 놀이이기도 하는데 예술가와 관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간다.



온라인 상영

산조(散調)의 가치를 이어가다.

프로그램

서용석류 대금산조

산조

산조(散調)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악 독주 양식으로 기본적인 장단과 조성을 전제로 연주자 개인의 예술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음악이다. 하나의 틀 안에서 자유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도의 기교와 독창적이고 즉흥적인 표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수련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은 아니지만, 산조가 갖는 음악적 ·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알고자 한다.

온라인 상영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서용석이 한주환에게 전승받은 가락을 토대로 본인의 독창적 가락을 더해 지금의 산조를 완성시켰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대금산조 중 가장 판소리 어법에 충실한 산조라는 평가와 함께 극적인 표현과 시김새, 그리고 음악의 구성력에서 최고의 산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 바탕 원형의 선율을 그대로 연주하면서 솔로 파트와 중주 파트로 구성, 새로운 연주 형태로 선보인다.

출연진 소개

김상연

김상연은 현재 정악과 민속악 창작 음악에 이르기까지 전 장르를 아우르는 연주자이다. 국립국악원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7년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최연소로 수상, 2018년 사야국악상과 2020년 KBS국악대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스승인故 서용석 명인이 산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춘 연주자라고 극찬한 바와 같이 그동안 수차례의 전바탕 발표를 통해 서용석류 대금산조 원형 보존의 대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서용석류를 바탕으로 한 김상연 가락 대금산조를 구성,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출연진

대금 박종현, 양수연, 김승겸, 최종운
장구 전인근



오늘, 아리랑

프로그램

1. 정선아리랑 / 이별가
2. 구아리랑 / 본조아리랑
3. 긴아리랑
4. 영천아리랑 / 밀양아리랑 / 해주아리랑 / 강원도아리랑
5. 오돌또기 / 영주십경가 / 너영나영
6. 노랫가락 / 청춘가 / 창부타령



아리랑

아리랑은 짧은 가사로 이루어져 누구나 쉽게 외우고 따라 부를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부르며 입에서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독특한 음악이기도 하다. 오늘날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3천여 곡이 넘는데 각 지역의 아리랑은 언뜻 비슷하면서도 자세히 들어보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불리는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 장단과 후렴에 차이가 있고, 민중 정서가 담겨져 있다.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10주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며, 황해도 해주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한반도 굽이 굽이에 흐르고 있는 아리랑의 선율을 다채롭게 담아보았다.

출연진 소개

이춘희

어떠한 고음에서도 잡티가 전혀 없는 잘 훈련된 목과 탁월한 성량, 미세한 음처리까지 빈틈없는 완결성 등을 갖춘 당대 최고의 명창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이자 왕성한 활동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인해 비단 민요 분야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음악계에서도 최고의 거장으로 인정되는 예술가이다. 2012년 12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회의장에서 ‘아리랑’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시 현장에서 ‘아리랑’을 가창하였으며, 2014년 라디오 프랑스에서 출시한 음반 (Arirang & Minyo Singing / South Korea)으로 독일음반비평가상 월드뮤직상을 수상했다.

강효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경기소리가 가진 예술성과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천성 소리꾼이다. 다수의 독창회를 꾸준히 선보이며 전통창법의 소리를 비롯하여 전통에 기반한 소리의 입체화를 실현, 기존 경기소리 무대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와 현대적인 해석, 탁월한 창의력으로 극찬을 받으며 경기소리 매력을 극대화하는 무대를 만들어왔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통성악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출연진

훗소리 권정희, 최정아, 이소연, 최수안
장구 이경섭, 사회자 윤중강
가야금 김보경
피리 이호진
대금 김선호
해금 김지희

그림The林 동화콘서트 '자라는 자라'

이야기 하나 해볼까??

머나먼 옛날 네발로 걸으면서도 헤엄치고, 물집슴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물고기는 더더구나 아닌, 그저 용왕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바다에서 살아간 어떤 자라의 이야기. 마치 그림책을 보는 듯한 영상, 판소리와 서도민요가 그림의 연주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해진 음악, 감각적인 소리들이 선사하는 시청각적 즐거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창작 무대를 선보인다.



온라인 상영

단체소개	
그림The林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창작과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완성도 있는 결합으로, 전통예술 콘텐츠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예술단체이다. 작곡 연주 연출 그리고 제작까지 창작역량을 갖추어 2001년부터 4장의 앨범을 발표하였고, 2017년 KBS 국악대상에서 단체상과 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출연진	제작진
가야금 김민정	대본 이가현
관악기 정진우	연출 정종임
베이스 이우영	영상 김일현
타악 장경희	음악 신창렬
소리꾼 이나라, 심소라	안무 유선후
나레이션 홍범기	의상 우영주
	기획 최은정, 정혜미



생사의_죽음에 관한 삶의 음악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삶.
죽음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 찾은 희망.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산 자와 죽은 영혼을 초대하고, 아직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며 잔치를 연다. 이 잔치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누가 산 자인지 알 수 없게 되는데...

전통과 현대에 자유로운 솔리스트들과 이날치의 장영규, 독일 현대음악 작곡가 세바스티안 클라렌(Sebastian Claren) 등 창작자들에 의해 전통음악을 현대음악의 방식으로 삶과 죽음을 풀어내다.



온라인 상영

단체소개	
왓와이 아트 한국 현대음악을 하는 솔리이스츠 앙상블이자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이다. 다양한 장르의 국내 외 예술가와 협업하여 한국음악과 한국악기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왓와이 아트는 전통과 현대가 독립된 개체가 아닌 유기적 관계라는 것에 주목했다. 동시대성 미래지향성을 추구하며, 한국의 문화예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출연진	제작진
타악 김응식	기획/연출 강지은
대금 유홍	음악 세바스티안 클라렌
거문고 김준영	(Sebastian Claren),
해금 강지은	장영규, 이태원
소리 이나라	애니메이션 berryberri
바리톤 이용광	무대/의상 우상희



광대 탈놀이 ‘판소리 판’

익살스런 탈놀이와 탄소리 허다한 판소리의 만남.
뻥-한 판소리 이야기 속으로 뛰어든 거지들의 깡판이
시작된다!

자고로 거지란 지갑도 없고 내일도 없고 염치도 없는 법!
돈은 댔고! 밥만 준다면 산이고 바다고 어디든 달려가는
광대 거지들과 함께 판소리 다섯 마당을 비틀어 제멋대로
놀아보자.



온라인 상영

단체소개	
The광대 전통연희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단원들이 모여 시대와 함께 가는 창작 연희를 보여주고 있다. 단원 개개인이 명인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우리의 전통연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옛 광대들의 예술과, 삶의 자취를 기억하며 그 길을 이어가고자 한다.	
출연진	제작진
안대천, 최영호, 허창열, 이상영, 배정찬, 김용훈, 이강산, 민현기, 송보라	작 정진새 연출 최여림 안무 권영호 음악감독 황민왕 연희감독 배정찬 무대미술, 조명 디자인 김려원 의상 디자인 강정화 탈 디자인 송성원 무대감독 곽소연 음향감독 이시훈 기획 김수연 손다는 장현진



팔음(八音)

15세기 세종이 만든 종묘제례악에 질문을 던진다.
당연하게 내려져 온 전통음악이 과연 우리에게 꼭 맞는
음악일까?

다양한 전통음악의 처음은 어떤 모습이며, 어떠한 정신과
의미를 담고 있기에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고 연주되는
것일까. 15세기 조선의 세종은 조선의 종묘제례악을 새롭게
만들고, 송나라로부터 들여온 대성악으로 종묘제례를
지내던 고려의 휘종에게 질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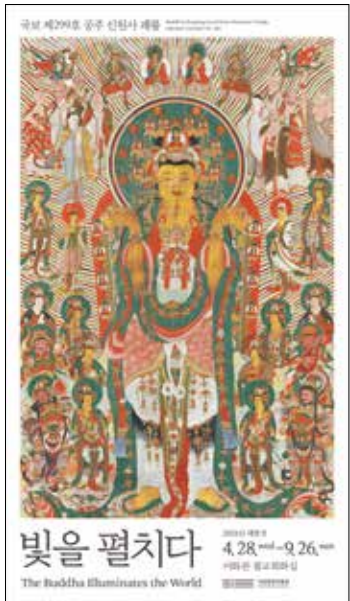
아악과 향악에서 악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팔음(八音)’을 뼈대로 삼아 15세기 세종의 종묘제례악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온라인 상영

단체소개	
음악그룹 나무 크리에이티브 대금 연주자 이아람을 중심으로 타악 연주자 황민왕, 피리 연주자 성시영, 베이스리스트 황인환 등 각자의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4명의 창작자이자 솔리스트로 구성된 콰르텟이다. 전통음악의 깊은 정신을 바탕으로 동시대 음악어법을 받아들여 음악그룹 나무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드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출연진	제작진
대금 이아람 타악 황민왕 피리/태평소/기타 성시영 베이스 최인환 움직임 송영인, 이영은	프로듀서 정혜리 음향디자이너 권성용 조명디자이너 박현정 비주얼디렉터 조일경





테마전

빛을 펼치다- 국보 제299호 공주 신원사 괘불

2021. 4. 28.(수). ~ 2021. 9.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관 불교회화실

※ 코로나19로 인해 상설전시관은 사전예약제운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http://www.museum.go.kr/site/main/reserve/exhibitionhall/intro>

* 예약 인원 미달 시 현장에서 입장권 발권 후 입장 가능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인 1664년, 나라의 명산으로 이름 높은 계룡산 신원사에서 10미터 높이의 괘불掛佛이 완성되었다.

오색으로 한껏 찬란함과 광명光明을 뽐내는 부처와, 부처가 펼쳐내는 빛 속에 모여드는 여러 무리들,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색채와 선의 향연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



특별전

호모사피엔스 : 진화∞ 관계& 미래?

2021. 5. 18.(화). ~ 2021. 9. 26.(일).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품 : 고인류 화석, 예술품, 고고 자료 등
700여 점의 전시품과 영상 자료 등

이번 특별전시는 700만 년이라는 긴 인류 진화의 여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이다. 진화적 관점에서 본 인간 존재의 의미와 진화 과정에서 맺어 온 다양한 생물종과의 관계를 화석 자료, 고고 자료 등 700여 점의 전시품과 영상으로 풀어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가능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테마전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 명품전

2021. 7. 21.(수). ~ 2021. 9.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

전시품 :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등 45건 77점

※ 코로나19로 인해 상설전시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온라인 사전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reserve/specialhall/intro>

2021년 4월 고故 이견희 회장의 문화유산 2만 1천 6백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방대한 기증품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명품이다. 이견희 회장이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며 모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감상하시면서 명품을 만든 선인의 노력과 명품을 지켜온 기증자의 철학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별전

중국 고대 청동기- 신에서 인간으로

2021. 9. 16.(목). ~ 2021. 11. 14.(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품 : 기원전 21세기 하왕조- 기원후 3세기 한대까지의 중국
상하이박물관 대표 청동예기 122점 및 주조모형 9점

중국 고대 청동기는 기원전 21세기 중국 첫 번째 왕조인 하왕대부터 제작되어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 발전한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는 중국 고대 청동기를 통해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의례와 일상, 상징과 예술 등 청동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로 신, 권력,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청동기 문화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박물관 전시소개

박물관 전시소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안내
전시문의 02-2077-9000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웹진 월간 공진단

MAGAZINE
GONGJINDAN



공진단 BLACK

BLACK

블랙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웹진으로
'전통문화 묘약'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전통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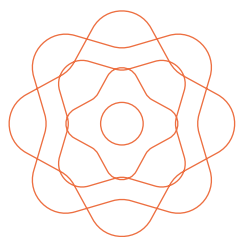
(월간 공진단)은 전통예술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전통예술을 확장하는 현재진행형 아티스트를 소개하며
현재에도 우리 곁에 숨 쉬는 전통예술과 대중을 이어갑니다.

계간 (공진단 블랙)은 전통예술계 정보와 동향을 담은
전문 매거진으로 새로운 시각을 지닌 전문가, 비평가와 함께
전통예술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월간 공진단)은 매월 초, (공진단 블랙)은 계간 발행되며
구독신청을 통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_대외협력팀 02-580-3282

구독신청 webzine@kotpa.org



www.kotpa.org